군복무 경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수성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 전문검열관)**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영업 창업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로 알려진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사회적자본(네트워크, 롤모델), 인적자본(교육 및 경험), 재정자원(보유자산, 연금 등) 등이 전역 예정 군인들의 자영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군 복무 경험 특성(근무기간, 근무환경(지역), 계급(신분), 군 인연금, 병과 구분 등)이 자영업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군복무 환경에 따라 창업의도가 상당히 달라진 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무환경이 열악했던 군인들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 관련 교육을 전직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 복무기간 중에도 일부 개방하는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대군인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제대군인들에 대한 전직 지원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군 복무 경험, 창업의도, 자기효능감, 인지된 바람직함

│.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과 적응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제대군인들은 오랜 군생활로 인한 유 연성 부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사회적응력 부족 등으 로 제대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7천여 명 정도의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수한 군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래에 대한 보장과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재취 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중·장기복 무 제대군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군인 사회 연착 륙 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군 인의 정년은 사회나 공무원의 정년에 비해 6년 정도 짧은 편 이며, 생활환경면에서도 소외 지역근무 등 근무여건을 고려 해볼 때 일반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군인의 사회연착륙 실패 는 장기적으로 장기복무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대군인의 창업참여도 매우 저조하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5년간 국가보훈처 조사결과와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5.4%로서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사회 전반의 이 기간 평균 사회고용률 65.5%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2016년 기준 창업률이 18.2%인데 비해 제대군인들의 창업률은 3.1%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 복무 경험과 특성이 자영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일반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인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인적자본(교육 및 경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롤모델), 재정자원(보유자산, 연금 등) 등을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함께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 복무경험 특성(근무기간, 근무환경, 계급, 군인연금, 병과 구분 등)이 자영업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연 무엇이 제대군인들의 창업을 저조하게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이 논문은 저자 정수성의 박사학위 논문(국민대학교)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제1저자,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전문검열관, 경영학 박사, jss8071@naver.com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drkim@kookmin.ac.kr

[·] 투고일: 2019-08-29 · 수정일: 2019-10-09 · 게재확정일: 2019-10-26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일반적인 개인특성과 군경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2019년 1월부터 국방전직교육원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장교 172명, 준·부사관 184명 등총 356명의 설문을 받아 분석 자료로 채택하였다. 설문지는연구자가 응답자들에게 직접 설문 방식으로 설문하고, 회수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Ver. 23.)와 AMOS(Ver. 2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validity)를 검정하기 위하여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정을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측정방법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계수를 측정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 검정을 위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경로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8. 6. 14.)」에 의하면, "제대군인"이란「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며,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2.2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의도는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과정이며,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다(Fishbein & Ajzen, 1975). 의도는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및 인지된 실현 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의도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자신의 행동에 의해 미래에 나

타나게 될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Ajzen, 1991).

Krueger, et al.(2000)은 의도가 기업가정신을 포함하여 계획된 행동에 대한 최고의 예측 변수라고 주장하며, 심리적인과정으로서 행동 연구에서는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있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Bae, et al.(2014)은 창업의도를 사업을 소유할 가능성에 관한 판단으로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창업의도는 창조적 활동을 토대로 산물을 생산하는 제반 활동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창업의도 활동에 관한 연구는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SEE)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Shapero & Sokol(1982)는 SEE모델에서 창업에 관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지된 타당성과 인지된 바람직함, 행동 경향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Ajzen(1991)의 TPB모델은 의도의선행변수로서 행동을 향한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2.3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andura(1977)는 사회인지 학습 이론가로서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는 행동주의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인지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소와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때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업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인간행동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창업의도는 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지우, 2000). 유봉호(2015)는 청년창업자의 심리적특성을 자기효능감의 선행변수로 보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윤방섭(2004)은 창업의도의 결정요인이라는 논문에서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2.4 인지된 바람직함(Perceived Desirability)

SEE로 알려진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은 TPB로 불리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과 함께 유사한 의도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창업의도와 창업 행동을 설명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였다. 창업이벤트 모델은 창업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지된 타당성과 인지된 바람직함, 행동 경향 등의 세 가지로 보았고, Brännback, et al.(2007)은 창업 모델이 주로 인지된 바람직함과 인지된 타당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된 바람직함함(perceived desirability)은 창업에 대하여 개인의 마음이 끌리는 정도를 뜻하며, 개개인이 창업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평가를 포함한다. 즉, 개인이 창업할 때

주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Shapero & Sokol(1982)는 창업에 대한 개인의 내부적, 외부적 영향과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이 자기 사업에 대해 느끼는 매력의 정도라고 인지된 바람직함을 정의하였다. 즉, 인지된 바람직함은 자신의 내부적·외부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창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창업이벤트모델에서는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요인인 인지된 바람직함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Saeed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바람직함이라는 변수가 롤모델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개인적 특성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지된 바람직함은 개인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희생을 기꺼이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2.5 자영업 창업 관련 연구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자영업 창업에 관련된 연구들을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재정자원, 창업의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롤모델 관련 연구가 있으며, 인적자본 관련 연구는 교육과 경험 관련 연구를 적용하였다. 재정자원 관련 연구는 가계자산 관련 연구와 연금(군인연금), 생애주기 관련 연구를 포함하였다. 창업의도 관련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과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SEE)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개념을 적용하였다.

2.5.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관련 연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 구성요인도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Mattessich & Monsey(1997)는 네트워크(networks), 신뢰(trustworthiness), 호혜적 규범(norms of reciprocity), 이 세 가지 요인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규명하였다.

2.5.1.1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 이라 할 수 있으며, Burt(1997)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을 조직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맺고 있는 당사자가 어떤 구성원과 연결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네트워크 형태로 정의하였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특정 유형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Putnam(2000)은 네트워크의 형태와 속성을 사회적 연결강도와 밀도, 집중화로 설명하고 있다. 연결 강도는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결속력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연결강도가 강한 네트워크는 빈번한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이 높아지게 되고 공동의 문제해결, 적응 과정을 제공하여 협상 비용과 감

시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집단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명호·오흥석, 2005).

2.5.1.2 롤모델

롤모델은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자신이 어느 정도 성숙(성공)을 이룰 때까지 그를 모델로 삼는 것을 말하며, 롤모델은 정보와 지원의 원천일 수도 있다. Scherer, et al.(1989)은 롤모델의 관찰을 통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가능성뿐 아니라, 어떻게 상황들이 처리될 수 있고, 어디서 자원들을 얻을 것인가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들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롤모델은 격려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Bandura, 1977, Rivera et al., 2007),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 중 하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Lent, et al., 1994).

Davidsson & Honig(2003)은 사업하는 부모가 있거나 친한 친구 또는 이웃이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초기의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자의 주변에 창업에 성공한 롤모델이 있다는 것과 창업을 할 경우 정서적·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그 중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롤모델이며, 창업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롤모델의 과정을 통하여 자녀들의 창업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Scott & Twomey, 1988).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론 중 네트워크 요소와 롤모델을 중심으로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네트워크와 롤모델이 창업의도에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바람직함을 매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5.2 인적자본(Human Capital) 관련 연구

인적자본은 오랜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어 왔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은 William & Petty(1899)와 Smith(1776)에 의해 미약하나마 경제분석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인적자본의 개념은 Schultz(1961)가 교육경제학이라는 학문과 연계시키면서 경제분석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 말부터 비로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Cooper, et al.(1994)은 인적자본은 지식, 기술, 문제해결 능력, 규율(discipline), 동기부여 및 자신감(self-confidence)의 원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Cassar(2006)는 인적자본은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확실한 성장과 긍정적인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Schenkel, et al.(2009)은 인적자본 이론에 내재 되어있는 것은 지식 축적을 통해 개인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새로운 개인 투자 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다른개인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연구 중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군 복무 경험 특성요소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2.5.2.1 계급

장교와 부사관은 획득과정이나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장교는 군 조직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각급 제대의 지휘관, 참모, 참모부서의 실무자 등의 직책을 수행한다(이태규, 2012). 부사관은 부대의 행정 및 보급업무를 전담하고 병사들의 신상 및 인사관리, 사고예방 분야, 부사관의 업무지도 및 선도,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태세를 지원하는 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지휘관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육군규정). 이와 같이 장교와 부사관은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책임과 역할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도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직무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기효능감의 차이로 나타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탐색적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2.5.2.2 병과 구분

국가보훈처(2018)의 각 군별 취업률 자료를 보면 육군 53.5%, 해군 58.1%, 공군 66.8%로 군별로 취업률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권상조(2011)의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과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정화·유성모(2013)의 연구에서도 병과에 따른 조직웰빙의 평균을 측정한 결과 전투병과(7.119), 기술병과 (6.681), 특수병과(6.814), 행정병과(6.616)의 순으로 병과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통계와 연구를 유추해볼 때 군별, 병과별 경험 특성의 차이로 인해 창업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병과를 분류기준에 따라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조종, 항해 등), 기술행정병과(정보, 정비, 군수, 화학, 보급, 헌병, 인사, 행정, 정훈, 재정 등), 특수병과(군종, 의무, 법무 등)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탐색적 분석에 적용하였다.

2.5.2.3 근무기간

기존 연구에서는 근무기간(period of service)이 증가함에 따라 총체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고 하였다(이영균·최복희, 2010). 또한, 이경호(2008)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부사관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복무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개인특성을 다룬 연구에서는 복무기간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있다(최미미, 2017).

2.5.2.4 근무지역(근무환경)

기존 연구에서 박영희 외(2011)에 의하면 근무환경이 좋으 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연구 에서 볼 때 군인들도 근무환경(근무지역)이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 창업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다수의 직업군인들은 면 단위 이하의 격오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군부대 가 산간이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 약 절반에 이르는 직 업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전국의 격오지에 생활하고 있다. 군 부대의 위치상 해당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 격오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의 경우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기혼간부 별거율은 평균 30.7%(중령 53.5%, 대령 76.3%)로 사회의 별거율 21.2% 와 공무원 별거율 13.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러한 격오지 근무여건은 지역사회의 심리·사회·경제적 지원 체계와 네트워크가 취약한 구조 속에 있다는 특성이 있다(김 정은, 2016). 이성희 외(2007)도 자기효능감은 근무환경과 같 은 일반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2.5.3 재정자원 관련 연구

2.5.3.1 자산

자산은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 등을 포함하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실물자산으로 구성되며, 부채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성된다.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평균 자산액에서 평균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가계가 보유하는 자산의 형태는 크게 금융자산(financial asset)과 실물자산(tangible asset)으로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채권, 보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실물자산에는 부동산 관련(토지, 주택 등) 자산이 대표적이다. 금융자산은 저축액에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한 총저축액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자산과 금융자산 (주식,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포함한 가계자산이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가 보유 여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을 각각 조사하여 자산의 총액을 구하고, 가구의 총자산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5.3.2 연금

연금이란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기 어려운 노후 생활에 대비하여 경제활동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로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공적연금(pension)은 국가의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원래는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있거나 일정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주는 돈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그 의미가 확대되어, 군인이나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군인연금과 관련하여 연금의 수령여부와 수령액(구간별)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5.3.3 군인의 생애주기

Ando & Modigliani(1963)에 따르면 생애주기 이론은 저축 및 소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이론으로 개인 및 가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Blanchflower & Oswald(1998)는 자영업 참여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생애주기 효과 (life-cycle effects)를 갖는다고 하였다.

군 간부들은 직업군인으로서 장기복무의 기회가 있으나 전급 선발이 되어야 장기복무가 가능하며, 장기복무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약 6년 정도 빠르고, 직업적 안정성도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계급별 정년에 따라 생애 최대지출 시기인 40대, 50대에 전역하게 되는 제대군인은 경제적인 부담 가중은 물론, 사회의 취업경쟁에 적응하기 곤란한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주기를 자녀 각각의 양육비로 계산하고, 총비용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출생 이후부터 대학 졸업까지 22년 동안 자녀 1명당 지출되는 총양육비는 약 2억6천 200만원으로 추정하였다(이소영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총양육비용이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5.4 개인 특성 관련 연구

Simoes는 논문에서 7가지 범주로 분류된 자영업 진출의 12 가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Simoes는 자영업에 진입하기로 한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운데 7가지 범주(기본적인 개인특성, 가족배경, 개인특성, 인적자본, 건강상태, 국적 및 민족, 재정자원)로 분류된 12가지 개별요소(성별, 연령, 결혼상태, 자녀, 부모, 배우자, 개인특성, 교육, 경험, 건강상태, 국적, 재정자원)가 핵심요소라고 하였다 (Simoes et al., 2016).

2.5.4.1 연령

왜 노인이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를 정당화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자영업으로의 전환, 즉, 특정 인적 자본, 금융자본 및 사회적 자본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몇 가지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연령은 융통성 있는 고용 상황에 대한 더 강한 욕구 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부분적인 변화나 제한 된 건강 상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Cahill et al., 2013). 세 번째 추론은 자신의 경력이 끝날 때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를 연기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일자리의 대안으로 자영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Kerr & Armstrong-Stassen, 2011; Van Solinge & Henkens, 2014).

2.5.4.2 결혼상태

기존 연구에서 결혼상태는 노동시장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Özcan, 2011; Parker, 2008). 즉, 결혼상태는 자영업자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배우자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영업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Parker, 2008).

개인이 결혼하면 잠재적으로 자영업자의 재산이 증가한다. 또, 배우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정서적 지원은 자영업 진입에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였다(Bosma et al., 2004). 여성이 가정 내 노동과 보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결혼한 남성(여성)의 자영업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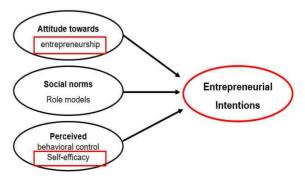
2.5.5 창업의도 관련 연구

2.5.5.1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Ajzen(1991)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확장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TPB)을 제시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추가하였다. 인지된 행동통제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기회나 자원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 의미한다.

의도와 함께 인지된 행동통체는 최종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한관섭, 2012). 계획된 행동이론은 특정 상황에서 인간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며, 계획된 행동이론의 핵심요소는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라고 하였다(Ajzen, 1991).

TPB모델은 의도의 선행변수로서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 (personal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를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Ajzen(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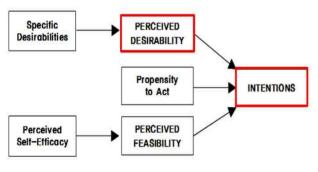
2.5.5.2 Shapero의 창업이벤트 모델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SEE: Shapero's model of entrepreneurial event)은 개인의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을 이해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Krueger, et al., 2000). 창업이벤트 모델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지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 인지된 바람직함(perceived desirability), 행동 경향(propensity to act) 세 가지로 보았다.

인지된 바람직함(perceived desirability)은 창업에 대하여 개인의 마음이 끌리는 정도를 뜻하며, 개개인이 창업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평가를 포함한다. 즉, 개인이 창업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지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은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위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신념과 능력을 말한다(Kruger, et al., 2000). 이러한 인지된 타당성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본인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창업을 할 때 창업자본인이 느끼는 자신의 능력 정도라고 할 수 있다(성창수, 2011).

행동경향(propensity to act)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의도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Shapero & Sokol, 1982). Kruger, et al.(2000)과 Seligman, et al.(1990)은 기회에 대한 행동 경향은 통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행동 경향 없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초기의 의도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목표 지향적 행동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인식(internal locus of control)이 중요하며, 학습된 낙관(learned optimism)을 통해 목표 지향적인 행동(goal -directed)에 대한 몰입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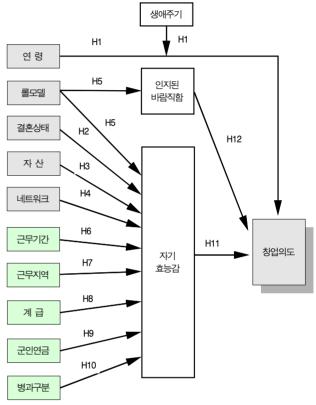
<그림 2> Shapero-Krueger Model(2000)

Ⅲ.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적 배경 특성 중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연령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생애주기의 조

절효과를 분석하고, 결혼상태, 자산, 사회적 네트워크, 롤모델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롤모델이 인지된 바람직함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인의 경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근무기간, 근무환경(근무지역), 계급, 군인연금 수령과 수령액, 소속 병과별 특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림 3> 연구 모형

3.2 가설설정

3.2.1 연령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Blanchflower & Oswald(1998)는 자영업 참여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생애주기 효과(life-cycle effects)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선택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영업의 경우 정년의 제약 없이 임금근로자 보다 더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분석되었다. 한편, 연령과 창업의도와의 관계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ydans(2001)는 젊은층이 보다 모험적이기 때문에 창업의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진다는 주장을 적용하였다.

가설 1: 연령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생애주기가 연령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 이다.

3.2.2 결혼상태와 창업의도와의 관계

기존 이론에 의하면 자영업을 선택할 성향과 관련하여 배우자 간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Parker, 2008). Bruce(1999)는 남편의 자영업 경험이 아내가 자영업이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6.5%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태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Parker(2008)의 연구를 근거로 결혼상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혼상태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결혼상태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결혼상태는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자기효능감은 결혼상태와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3.2.3 자산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Moutray(2007)는 보유자산(자택 소유 또는 자택의 가치)과 군 복무 경험은 자영업의 가능성을 상당히 증가시키며, 이두 요소는 교육 정도 보다 자영업 추세에 더 강력한 예측인 자라고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가계자산과 자영업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Evans, & Jovanovic, 1989; Evans & Leighton, 1989). Moutray(2007)에 따르면 주택은 자산 가운데에서도 자영업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산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Moutray(2007)의 주장을 채택하여 보유자산과 자가보유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산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자산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자산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자기효능감은 자산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4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한 유대는 새로운 창업 시작과 같은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높은 창업의도를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활용된다(Martinez & Aldrich, 2001; Krackhardt et al., 1992). 창업자들은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의 유대를 통해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창업 초기단계에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다(박성희, 2016). 또한, 창업자들은 내부 구성원과의 신뢰와비전 공유를 통해 창업의도를 구체화하여 실제 창업에 이르게 된다. 즉,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보유할수록 기회의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사업기회와 창업의도를 갖게 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 하였다(이승배, 2013).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설문을 통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전역 예정 직업군인들의 군 내부와 외부의 네트워크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네트워크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네트워크는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자기효능감은 네트워크와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3.2.5 롤모델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창업자인 부모는 롤모델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들이 창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Scott & Twomey, 1988). Lent, et al.(1994)은 롤모델을 포함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자기효능감과 직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김우영(2001)은 부모가 자영업자인지의 여부가자녀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BarNir, et al.(2011)은 롤모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 역할을 입증하였다. 롤모델은 창업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변수이며, 롤모델은 창업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창업의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주장하였다.

인지된 바람직함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매력을 갖는 개인의 태도로 개인이 창업에 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개인의 평가의 정도이다.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비교 분석한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이벤트 모델의 인지된 바람직함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과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롤모델은 인지된 바람직함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바람직함을 매개로 창업의도에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롤모델은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바람직함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5: 롤모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1: 롤모델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2: 자기효능감은 롤모델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5-3: 롤모델은 인지된 바람직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4: 인지된 바람직함은 롤모델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6 근무기간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기존 연구에서는 근무기간(period of service)이 증가함에 따라 총체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고

하였다(이영균·최복희, 2010). 또한, 이경호(2008)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부사관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복무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에게 있어서근무기간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6: 근무기간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1: 근무기간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6-2: 자기효능감은 근무기간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3.2.7 근무환경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기존 연구에서 박영희 외(2011)에 의하면 근무환경이 좋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연구에서 볼 때 군인들도 근무환경(근무지역)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다수의 직업군인들은 면 단위이하의 격오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군부대가 산간이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여 약 절반에 이르는 직업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전국의 격오지에 생활하고 있다.

격오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의 경우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기혼간부 별거율은 공무원 별거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러한 격오지 근무여건은 지역사회의 심리·사회·경제적 지원체계와 네트워크가 취약한 구조 속에 있다는 특성이 있다(김정은, 2016).

본 연구에서는 군 복무기간 동안 근무했던 근무지역을 면이하(격오지), 군·읍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해당 지역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 분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근무환경(근무지역)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근무지역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1: 근무지역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2: 자기효능감은 근무지역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3.2.8 계급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장교와 부사관은 획득과정이나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장교와 부사관은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책임과 역할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도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직무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기효능감의 차이로 나타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탐색적 가설을 설정함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 시 계급을 기준으로 장교(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룹과 준부사관(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그룹을 구분하여 각각 설문 측정을 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계급(신분)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8: 계급(신분)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8-1: 계급(신분)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8-2: 자기효능감은 계급(신분)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9 군인연금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연금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의하면 공적연금제도가 조기 은퇴를 유발하며, 공적연금 급여의 증가가 노동시장 참여율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Boskin, 1977). 또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노동공급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명규, 2011, 우석진, 2010, 전승훈, 2010), 이승렬·최강식(2007)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대자산이 중·고령자 임금노동자의 은퇴확률을 높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군인연금 수령 여부와 수령액을 측정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군인연금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9: 군인연금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9-1: 군인연금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9-2: 자기효능감은 군인연금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3.2.10 병과와 창업의도와의 관계

기존 문헌에서 군 소속별 창업의도나 병과별 창업의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2018)의 각 군별취업률 자료를 보면 육군 53.5%, 해군 58.1%, 공군 66.8%로 군별로 취업률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권상조(2011)의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과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정화·유성모(2013)의 연구에서도 병과에 따른 조직웰빙의 평균을 측정한 결과전투병과(7.119), 기술병과(6.681), 특수병과(6.814), 행정병과(6.616)의 순으로 병과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병과를 분류기준에 따라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조종, 항해 등), 기술행정병과(정보, 정비, 군수, 화학, 보급, 헌병, 인사, 행정, 정훈, 재정 등), 특수병과(군종, 의무, 법무 등)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석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출신 병과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0: 병과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1: 병과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2: 자기효능감은 병과와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11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Krueger & Brazeal(1994)은 창업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사람은 위험, 역경, 불확실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인지하고 활용하려는 신념이 있으므로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에 대한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창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높은 자신감과 강한 신념으로 기업가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창업계획을 세우며 창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1: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2 인지된 바람직함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Shapero & Soko(1982)는 인지된 바람직함, 인지된 타당성 그리고 행동 경향으로부터 창업의도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인지가 창업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게 반응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경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동수행결과에 대한 신념과 그러한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의 태도적 신념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 수행 결과에 대한 신념은 특정 행위가 특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 확률을 의미하고,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특정 행동결과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평가 즉, 특정 행동결과가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태도와 행동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태도의 평가적측면에 관한 것으로 어떤 대상 혹은 그 대상과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 행동이 수행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된 바람직함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2: 인지된 바람직함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선행연구
	연령	전역시 나이	Cahill et al.(2013)
	혼인	현재 결혼여부	Borjas(1986) Bosma et al.(2004)
	자산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합계 (총자산액, 자가의 소유 유무)	이창희(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2019)
	네트 워크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	Coleman(1988) Putnam(2000)
독립	롤모델	부모, 친인척, 친구들, 동료들, 지인 들의 창업성공 경험 등	BirNir et al.(2011) Ronstadt(1984)
변수	근무 기간	군 복무기간(년 개월)	이경호(2008) 이영균 ·최복희(2010)
	근무 환경	근무지역(대도시, 중·소도시, 군·읍, 면 이하) 구분	박영희 외(2011) 이성희 & 박영신(2007)
	계급	전역 시 최종계급/장교와 준부사관 구분	김성우(2014)
	병과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공병, 조종, 항해 등), 기술행정병과(정비, 화학, 정훈, 재정, 보급, 헌병) 특수병과 (군종, 의무, 법무 등)	김문범(2010) 김용식· 하규수(2011) 이종호(2016)
	연금	연금수령 여부 및 연금 수령액	우상원(2015) 전승훈(2010)
매개	자기 효능감	어떤 특정한 과업을 자신의 능력 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	Bandura(1977) Salomon(1984) 윤방섭(2004)
변수	인지된 바람 직함	자신의 내외적인 여건과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창업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	Brannback et al.(2006) Shapero & Sokol(1982)
조절 변수	생애 주기	부앙해야 할 자녀의 수와 학년 (총양육비)	Blanchflower & Oswald(1998) 이소영 외(2018)
<u>종</u> 속 변수	창업 의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창업에 대한 강한 실행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행동계획	Balaceanu et al.(2014) Crant(1996) 이지우(2000)

3.3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설문지는 일반적인 창업 관련 기본설문, 창업의도, 자기효능 감, 네트워크, 롤모델, 인지된 바람직함, 인구통계학적 설문, 그리고 군 경험과 창업 관련 설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개인특성(연령, 결혼상태, 자산(액), 사회적 네트워크, 롤모델)과 군 경험 특성(근무기간, 근무지역(환경), 계급(신분), 군인연금(수령액), 병과 등)으로 구분하였다.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바람직함은 각각 6개 문항,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는 5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자산, 소속 군, 병과, 복무기간, 군인연금(액), 신분을 측정하였다. 추가적 설문으로 창업을 하려는 이유와 창업을 원하는 분야, 창업 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를 조사하였고, 군 경력과 군에서의 교육이 창업에 도움이 되는가도 설문 조사에 포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력, 군 소속, 건강 상태 등의 변인은 통제하였다.

Ⅳ. 분석 결과

4.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 설문조사와 본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예비설문조사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문 항목을 추출하였고, 본 설문조사의 조사기간은 2019년 1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4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44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98부를 희수하였고, 회수된 설문 중에서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356부의 설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은 SPSS Ver. 23.과 AMOS Ver. 23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변수		항목	빈도	비 율 (%)	누적비율 (%)	평균	표준 편차
성	벼	남자	331	93.0	93.0		
0	2	여자	25	7.0	100.0		
		20대	129	36.2	36.2		
연령		30대	58	16.3	52.5	39.18	11.63
		40대	63	17.7	70.2	39.10	11.03
		50대	106	29.8	100.0		
-174		고졸	79	22.2	22.2		
		전문대졸	67	18.8	41.0		
학력	력	대학교졸	102	28.6	69.6		
학력		석사	96	27.0	96.6		
		박사	12	3.4	100.0		
 결	_	결혼	229	64.3	64.3		
결	온	미혼	127	35.7	100.0		
		0.9억 미만	117	49.7	49.7		
	부동 산	0.9 ~3억 미만	73	20.5	70.2	20.63	30.62
T141		3억 이상	106	29.8	100.0		
자산		0.3억 미만	113	31.7	31.7		
	동산	0.3 ~ 0.8억 미만	120	33.7	65.4	8.13	11.15
		0.8억 이상	123	34.6	100.0		
		육군	237	66.6	66.6		
١.	_	해군	38	10.7	77.3		
소	*	공군	50	14.0	91.3		
		해병대	31	8.7	100.0		
н	71	전투병과	241	67.7	67.7		
병.	사	기타	115	32.3	100.0		
		7년 미만	58	16.3	16.3		
복		7~22년 미만	159	44.7	61.0	17.46	11.18
기	간 -	22년 이상	139	39.0	100.0		
		200만원 이하	225	63.2	63.2		
군	.01	201 ~ 300만원	40	11.2	74.4		
년 연		301 ~ 400만원	62	17.4	91.8		
	İ	401만원 이상	29	8.2	100.0		
۱ ا	ы	장교	172	48.3	48.3		
신	준	준부 사관	184	51.7	100.0		
		합 계	356	100.0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4.3.1 기술통계

<표 3> 변수의 기술적 통계값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롤모델	356	1	5	2.58	1.018
네트워크	356	1	5	3.28	.789
자기효능감	356	1	5	3.80	.856
인지된 바람직함	356	1	5	2.97	1.208
창업의도	356	1	5	2.84	1.312

4.3.2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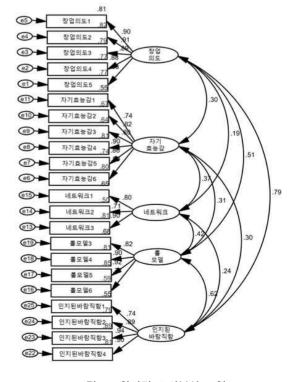
<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롤모델	네트워크	자기 호능감	인지된 비람직함	창업 의도
롤모델	1				
네트워크	.419**	1			
자기 효능감	.245**	.321**	1		
인지된 바람직함	.558**	.256**	.293**	1	
창업의도	.438**	.208**	.275**	.750**	1
*p< 0.05, **p< 0.0	11	•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확인적 요인분석(CFA)

4.4.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적합도



<그림 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RMSEA		
X ²	df	р	TLI	CFI	Value	Lower Bound	Upper Bound
676.058	201	.000	.922	.932	.082	.075	.088

모형적합도에서 CFI 값은 .932(>.9)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RMSEA값은 .082(<.10), TLI 값은 .922(>.9)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Browne & Cudeck, 1993).

4.4.2 집중타당성 분석

집중타당성 검증결과 변수의 개념신뢰도(CR)가 .853(>.7) 이상, 평균분산 추출값(AVE)이 .63(>.5) 이상으로 나타나 집 중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표 6> 집중타당성 검증

변수	개념신뢰도(CR)	AVE
창업의도	.901	.645
자기효능감	.932	.695
네트워크	.853	.661
롤모델	.873	.633
인지된 바람직함	.876	.640

4.4.3 판별타당성 분석

독립변수 상관관계 제곱값은 창업의도와 인지된 바람직함는 .616으로 나타났는데, 각 변수의 평균분산 추출값(AVE)은 모두 이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7> 판별타당성 검증

			상관계수 제곱(R2)
창업의도	\leftrightarrow	자기효능감	0.089
창업의도	\leftrightarrow	네트워크	0.035
창업의도	\leftrightarrow	롤모델	0.256
창업의도	\leftrightarrow	인지된 바람직함	0.616
자기효능감	\leftrightarrow	네트워크	0.133
자기효능감	\leftrightarrow	롤모델	0.097
네트워크	\leftrightarrow	인지된 바람직함	0.059
롤모델	\leftrightarrow	인지된 바람직함	0.388
네트워크	\leftrightarrow	롤모델	0.173
자기효능감	\leftrightarrow	인지된 바람직함	0.091

4.5 가설 검정

4.5.1 일반적인 개인특성의 가설 검정 결과

<표 8> 일반적인 개인특성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가 설			채택	기각	비고
H1	연령	\rightarrow		창업의도		√	
H1-1	생애 주기	\rightarrow		창업의도		√	
H2	결혼	\rightarrow		창업의도		√	
H2-1	결혼	\rightarrow		자기효능감		√	
H2-2	결혼	→ 자기효능감	\rightarrow	창업의도		√	
НЗ	자산	\rightarrow		창업의도		√	
H3-1	자산	\rightarrow		자기효능감		√	
H3-2	자산	→ 자기효능감	\rightarrow	창업의도		√	
H4	네트 워크	\rightarrow	→			√	
H4-1	네트 워크	\rightarrow		자기효능감	√		
H4-2	네트 워크	→ 자기효능감	\rightarrow	창업의도		√	
H5	롤모델	\rightarrow		창업의도	√		
H5-1	롤모델	\rightarrow		자기효능감	√		
H5-2	롤모델	→ 자기효능감	\rightarrow	창업의도	√		부분 매개
H5-3	롤모델	\rightarrow		인지된 바람직함	√		
H5-4	롤모델	→ 인지된 바람직함	\rightarrow	창업의도	√		완전 매개
H11	자기 효능감	\rightarrow		창업의도		√	
H12	인지된 바람직함	\rightarrow		창업의도	√		

4.5.2 군 경험 특성의 가설 검정 결과

<표 9> 군 경험 특성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가 설		채택	기각	비고
H6	근무기간	\rightarrow	창업의도		$\sqrt{}$	
H6-1	근무기간	\rightarrow	자기효능감		√	
H6-2	근무기간	→자기효능감 -	> 창업의도		√	
H7	근무지역	\rightarrow	창업의도	√		
H7-1	근무지역	\rightarrow	자기효능감	√		
H7-2	근무지역	→자기효능감 -	→ 창업의도		√	직접 효과
H8	계급(신분)	\rightarrow	창업의도		$\sqrt{}$	
H8-1	계급	\rightarrow	자기효능감		√	
H8-2	계급	→자기효능감 -	> 창업의도		√	
Н9	군인연금	\rightarrow	창업의도		√	
H9-1	군인연금	\rightarrow	자기효능감		√	
H9-2	군인연금	→자기효능감 -	> 창업의도		√	
H10	병과	\rightarrow	창업의도		√	
H10-1	병과	\rightarrow	자기효능감		\checkmark	
H10-2	병과	→자기효능감 -	> 창업의도		√	
H11	자기효능감	\rightarrow	창업의도		√	
H12	인지된 바람직함	\rightarrow	창업의도	√		

4.5.3 자기효능감/인지된 바람직함의 가설 검정 결과

a.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의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나타나 가설11은 기각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Krueger & Brazeal(1994)은 창업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사람은 위험, 역경, 불확실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인지하고 활용하려는 신념이 있으므로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경우실증분석 결과 특이하게도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 매개변수인 인지된 바람직함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의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Shapero & Sokol(1982)는 인지된 바람직함, 인지된 타당성, 그리고 행동 경향으로부터 창업의도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인지가 창업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인지된 바람직함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분석을 통해확인되었다.

4.6 결과의 종합 및 해석

첫째, 일반적인 개인특성의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연령에 따른 창업의도의 영향을 실증분석한 분석한 결과

연령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t값이 -.385(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b. 결혼상태는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상태와 창업의도의 관계는 t 값이 .710(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c. 자산(자산액)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자산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t 값이 .58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d. 네트워크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네트워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t 값이 5.156(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 e. 롤모델은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바람직함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업의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롤모델은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지된 바람직함을 완전매개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롤모델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t값이 2.847(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롤모델과 인지된 바람직함의 관계는 t값이 10.981(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와 같이 롤모델과 인지된 바람직함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은 창업을 고려할 때 부모나 친인척, 그리고 지인들의 창업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창업 성공사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신의 창업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인지된 바람직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 시 창업 자본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 등 창업 여건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정도와 창업 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군 경험 특성의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근무기간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b. 근무지역(근무환경)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즉,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근무한 기간이 긴 군인들이 격오지나 읍·면 이하에서의 근무한 기간이 긴 군인들에 비해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환경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무환경은 지역사회의 심리·사회·경제적 지원체계와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근무지역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t값이 2.229(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 c. 계급(신분)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d. 군인연금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e. 병과는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매개변수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바람직함의 가설 검정 결과, 인지된 바람직함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문헌에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들은 명백하게 지지 되어 온 이론들이다. 그러나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경우 자기효능감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Boyd et al.(1994)은 개인특성과 환경요인으로부터 진화하여 저장된 정보가 잠재기업가의 사고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고, 사고 프로세스가 발달하여 다시 자기효능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의 선행 요인을 개인특성과 환경요인, 그리고 사고 프로세스로 보았다. 그런데 자기효능감의 선행 요인 중 환경요인을 볼 때 군인들의 경우 근무환경이나생활환경의 영향으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높기보다는 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군인으로서 주어진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성된 것이라 추정된

다. 또한, 창업은 군인들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업무와 성격이 매우 달라서 자신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높게 측정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첫째,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경우 롤모델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무지역도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롤모델이 창업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은 창업을 고려할 때 부모나 친인척, 그리고 지인들의 창업 경험과 자신이 창업 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근무지역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격오지나 군·읍에서 주로 근무한 군인들의 경우 근무환경이나 생활환경의 영향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가 대도시에 근무하는 군인들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은 자산과 연금과 같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더라도 창업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산과 자영업 진입 간 의 긍정적인 관계의 존재를 강조하였다(Evans & Jovanovic, 1989). 그러나 군인들의 경우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이 증가 할 때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가설이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 았다. 이를 분석해 보면, 군인들의 경우 50대 초·중반이 되면 생애주기로 볼 때 자녀들이 대학교육까지 마치는 시기이며. 이 시기는 만기 정년이 되어 전역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이 적어지고, 자가를 보유하는 확률도 높아지며, 대부분이 퇴 직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런 조건에서는 창업의도가 높아져야 하지만, 투자에 보수적인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은 자기 자산을 투자하는 위험을 회피하 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택하거나 투자 리스크가 적은 귀농·귀 촌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기에 전역하는 군인 들은 생애주기 상으로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 로 창업에 투자할 자본의 부족으로 창업 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전역예정 직업군인들 의 경우 자산과 연금의 증가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지된 바람직함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이론에서 확고하게 지지 되어오던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가 군인들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특수한 근무환경과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낮고, 기본적인 창업 정보의 부족과 격오지 등의 근무 및 생활환경으로 인해 창업 관련 직·간접경험 기회의 제한 등의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또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높기보다 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이 창업을 원하는 분야가 요식업, 부동산업, 일반회사, 아웃소싱회사, 제조업, 운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이 원하는 창업은 소자본 자영업 창업과 전문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창업자금의 부족이며, 창업정보의 부족, 기술능력의 부족, 창업 자문기회 부족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창업자금과 정보 및 기술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창업 시 군 경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40.8%)이 긍정적인 응답(26.4%)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군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행하는 업무나 환경이 창업과 관련된 직·간접경험을 하기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군에서 받은 각종 교육도 창업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40.8%)이 긍정적인 응답(22.2%)보다 2배 정도 많았는데, 이 또한, 군에서의 교육·훈련 대부분이 창업과 관련 없는 군사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 중에는 창업관련 정보를 접하거나 직·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일반 사회의 개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개인특성 중 연령, 생애주기, 결혼상태, 자산(액), 네트워크, 롤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성별(gender), 자녀의 유무, 교육수준, 건강 상태, 국적 및 민족 등 다른 요인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어 다양한 개인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둘째,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군 경험 및 특성 요인 중근무기간, 근무지역, 계급(신분), 군인연금(수령액), 병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군 경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 군별(육·해·공·해병대) 특성, 보직 경험(지휘관·참모), 제대별 근무(상급·하급부대) 경력 등 요소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다양한 개인의 군 경험 특성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창업의도가 향후 창업으로 연결될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일반적인 개인특성과 군 경험 및 특성 요인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종단연구를 통해 개인들의 창업의도가 실제 창업으로 실행되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속에서 제대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창업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 동안 군인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군 생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군의 우수자원 확보라는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 국가보훈처(2018).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실적* from https://www.mpva.go.kr/mpva/data/policy07View.do?info id=6661&cate=
- 권상조(2011). 군 초급간부의 자기효능감 및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6(2), 199-232.
- 김명규(2011). 공적연금이 중·고령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결정요인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제3호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493-512
- 김문범(2010).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 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 김성우(2014). 육군부사관의 근무환경과 승진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급별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2(4), 350-373.
- 김용식·하규수(2011).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외적요인이 창업 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5), 2078-2086.
- 김우영(2001).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노동경제논집*, 24(2), 1-34.
- 김정은(2016).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긍정성과 가족의사소통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16(12), 281-290.
- 박성희(2016). 소상공인의 성격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본 확보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 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박영희·나중덕·김선희(201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직무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2, 349-367.
- 박정화·유성모(2013). 군인의 개인적 특성과 셀프 리더십, 긍정심리 자본, 오센틱 리더십, 심리적 웰빙, 정서적 웰빙이 조직웰빙 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11, 1-26.
- 성창수(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 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우석진(2010). 연구 논문: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한국노년학*, 30(2), 499-513.
- 유봉호(2015).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3), 51-60.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 경영연구*, 17(2), 89-110.
- 이경호(2008). 군 조직에서 부사관의 변화된 역할이 직무만족에 미

- *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성희·박영신(2007).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31-50.
-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이승렬·최강식(2007).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3(4), 83-103.
- 이승배(201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창업자 행동을 메개로*, 박사학 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영균·최복희(2010). 직업군인 가족의 삶의 질 실태분석. *한국군사* 회복지학, 3, 25-45.
- 이종호(2016). *제대군인 취업지원교육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국 가보훈처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 이태규(2012). 군사용어사전. 서울: 일원서각.
- 이창희(2018). 가계자산 축척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 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전승훈(2010). 생애 연금급여가 은퇴시기결정 및 은퇴자의 노동공 급에 미치는 영향. 제정정책논집, 12(1), 3-32.
- 정명호·오홍석(2005). *휴먼 네트워크와 기업 경영*. 삼성 경제 연구소 최미미(2017).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상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전직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 문지, 18(4). 511-520.
- 한관섭(2012). *신생 창업동기와 성장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 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Bae, T. J., Qian, S., Miao, C., & Fiet, J. O.(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17-254.
- Balaceanu, C. T., Apostol, D., & Dragne, L.(2014). Entrepreneurship and knowledge. *Social Economic Debates*, 3(2).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rNir, A., Watson, W. E. & Hutchins, H. M.(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70-297.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0.
- Boskin, M. J.(1977).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decisions. *Economic Inquiry*, 15(1), 1-25.
- Bosma, N., Van Praag, M., Thurik, R., & De Wit, G.(2004). The valu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investments for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tartups. *Small Business Economics*, 23(3), 227-236.
- Boyd, N. G., & Vozikis, G. S. (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Brännback, M., Krueger, N. F., Carsrud, A. L., Kickul, J., & Elfving, J.(2007). Trying to be an entrepreneur? A goal –specific challenge to the intentions model. *A goal-specific challenge to the Intentions Model(June 2007)*.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ruce, D.(1999). Do husbands matter? Married women entering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13(4), 317-329.
- Burt, R. S.(1997). A note on social capital and network content. *Social Networks*, 19(4), 355-373.
- Cahill, K., Stevens, S., Perera, R., & Lancaster, T.(2013).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smoking cessation: an overview and network meta-analysi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5).
- Cassar, G.(2006). Entrepreneur opportunity costs and intended venture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5), 610-632.
- Coleman, J. S.(1987).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the law.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3, 375.
- Cooper, A. C., Gimeno-Gascon, F. J., & Woo, C. Y.(1994). Initial human and finan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5), 371-395.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 42-49.
- Davidsson, P., & Honig, B.(2003). The role of social and human capital among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3), 301-331.
- Evans, D. S., & Jovanovic, B.(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4), 808-827.
- Evans, D. S., & Leighton, L. S.(1989).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519-535.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9-50.
- Kerr, G., & Armstrong-Stassen, M.(2011). The bridge to retirement: Older workers' engagement in post-career entrepreneurship and wage-and-salary employment. *Th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20(1), 55-76.
- Krackhardt, D., Nohria, N., & Eccles, R.(1992). Networks and organizations: Structure, form, and ac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Ch. The Strength of Stong Ties:*The Importance of Philos in Organizations, 216-239.
- Krueger J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Martinez, M. A., & Aldrich, H. E.(2011). Networking strategies for entrepreneurs: balancing cohesion and d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7(1), 7-38.
- Mattessich, P. W., Monsey, B. R., & Roy, C.(1997).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A review of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community building.

 Fieldstone Alliance.
- Mydans, S.(2001). Sexual Violence as Tool of War: Pattern Emerging in East Timor New York Times March 1, 2001. *New York Times*.
- Moutray, C.(2007). Educational attainment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 examination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Özcan, B.(2011). Only the loney? The influence of the spouse on the transition to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37: 465-492.
- Parker, S. C.(2008). Entrepreneurship among married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A simultaneous probit approach. *Labour Economics*, 15(3), 459-481.
- Petty, W., & Graunt, J.(1899). *The Economic Writings of Sir William Petty* (Vol. 1). University Press.
- Putnam, R.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Rivera, L. M., Chen, E. C., Flores, L. Y., Blumberg, F., & Ponterotto, J. G.(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role models, and acculturation on the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consideration of Hispanic wom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6(1), 47-61.
- Ronstadt, R.(1984). Ex-entrepreneurs and the decision to start an entrepreneurial career.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437, 460.
- Saeed, S., Yousafzai, S. Y., Yani-De-Soriano, M., & Muffatto, M.(2015). The role of perceived university support in the formation of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1127-1145.
- Salomon, G.(1984). Television is "easy" and print is "tough": The differential investment of mental effort in learning as a function of perceptions and attribu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647.
-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S., & Wiebe, F. A.(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53-72.
- Schjoedt, L., Kraus, S., Schenkel, M. T., & Garrison, G.(2009). Exploring the roles of social capital and team-efficacy in virtual entrepreneurial team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News*.
-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17.

- Scott, M. G., & Twomey, D. F.(1988). The long -term supply of entrepreneurs: students' career aspirations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4), 5.
- Seligman, M. E., Nolen-Hoeksema, S., Thornton, N., & Thornton, K. M.(1990). Explanatory style as a mechanism of disappointing athletic performance. *Psychological Science*, 1(2), 143-146.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 Simoes, N., Crespo, N., & Moreira, S. B.(2016). Individual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entry: What do we really kno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0(4), 783-806.
- Smith, A.(1776).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Van Solinge, H., & Henkens, K.(2014). Work-related factors as predictors in the retirem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older workers in the Netherlands. *Ageing & Society*, 34(9), 1551-1574.

A Study on the Impact of Military Service Experience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Jung soo-sung**
Kim do-h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military service experience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Hypotheses were developed based on extant literature and tested using the data collected by surveys to retiring officers and NCO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voluntary self-employment intention are role model, perceived desirability, and working environment. Second, the biggest difficulty in preparing to start a self-employed business is the lack of founding capital and entrepreneurial information. Third,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military career is not helpful in starting a business. Fourth, there were many negative perceptions that the education and training from the military does not help the self-employment.

As a result, it is believed that improvemen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n the military and expansion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during service are required. Especially, the education focusing on self-employed entrepreneurship should be improved.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now being carried out by the Military Outplacement Training Institute should be extended not only during the outplacement period but also the normal service period, thereby increasing the intention of the military official.

Keywords: Military Service Experi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Efficacy, Perceived Desirability

-

st This paper is based on the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 First Author, Ph.D, JCS Readness Inspector, jss8071@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drkim@kookmin.ac.kr